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	19E	18	19E	18	19E
현대중공업지주	5,578.2	19.9	342,500	0.0	-1.7	14.4	-1.0	4.6	3.9	0.6	0.5	14.1	14.7
한국조선해양	8,315.8	17.0	117,500	1.7	-2.9	22.8	-8.6	81.9	39.2	0.6	0.6	0.7	1.4
삼성중공업	4,416.3	19.2	7,010	-0.3	-10.4	3.4	-5.4	44.2	21.9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060.7	12.9	28,550	-0.7	-2.2	18.5	-16.4	10.0	8.3	0.8	0.8	9.0	9.2
현대미포조선	1,709.5	15.1	42,800	0.1	-2.8	13.1	-28.7	9.2	6.7	0.3	0.3	3.6	4.8
한진중공업	411.0	20.8	4,935	-0.1	9.7	13.2	-40.4	99.3	24.8	0.7	0.7	0.7	2.8
한국항공우주산업	3,723.5	21.6	38,200	0.8	0.9	2.4	19.7	55.7	16.5	3.4	3.0	6.1	20.1
한화테크윈	1,972.2	22.1	38,250	0.7	-8.2	2.8	17.7	158.5	16.4	0.9	0.8	0.6	4.8
LG넥스원	756.8	5.4	34,400	5.8	-2.0	12.6	-6.9	79.2	N/A	1.5	N/A	2.4	N/A
현대로템	1,394.0	4.6	16,400	-0.3	-10.9	3.1	-41.1	21.2	14.4	0.9	0.9	4.5	6.3
현대엘리베이터	2,088.9	21.6	76,800	0.0	-4.2	0.1	-28.2	13.6	13.2	1.9	1.7	14.6	13.3
두산중공업	1,148.2	10.9	5,680	-0.4	-13.0	2.3	-32.3	-17.1	-26.7	0.2	0.4	-0.1	-0.7
두산밥캣	3,288.2	26.4	32,800	2.5	0.0	-7.5	5.8	12.0	11.3	0.9	0.9	7.4	7.6
두산인프라코어	1,205.3	16.2	5,790	2.1	-6.3	-0.5	-23.7	4.0	4.5	0.6	0.6	17.7	13.1
현대건설기계	581.2	11.7	29,500	1.7	-7.4	7.9	-30.9	1.9	1.4	0.2	0.2	11.7	13.9
현대일렉트릭	205.3	4.9	8,960	-0.6	-1.6	-13.1	-53.2	0.8	0.7	0.1	0.1	9.3	9.7
하이룩코리아	248.4	47.0	18,250	1.4	3.1	15.9	10.9	8.3	7.6	0.7	0.7	8.8	9.0
성광광전	291.7	20.6	10,200	1.0	-2.4	15.4	-10.5	901.7	36.6	0.6	0.6	0.1	1.8
태광	261.8	13.5	9,880	0.6	-4.5	17.9	-15.6	59.0	28.8	0.6	0.6	1.0	2.1
동성화인텍	261.7	6.8	9,700	0.4	-5.8	23.6	25.6	-20.5	12.9	3.6	2.8	-16.2	24.4
한국카본	327.1	13.0	7,440	-0.9	-13.5	12.9	5.7	115.9	26.0	1.1	1.1	0.9	4.0
태웅	185.9	5.0	9,290	-4.7	-5.2	5.4	-11.5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46.6	2.7	4,450	-0.7	22.4	54.0	-15.7	-11.7	-5.9	0.6	0.7	-4.7	-9.9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30p, 중고선가 지수 97p

Clarksonsdp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30p, 중고선가 지수는 97p를 기록하며 전주와 동일함. 지난 주 Clarkson에서 집계된 국내 조선소 수주는 확인되지 않았음. 올 해 보고된 신규 건조 계약 체결 선박 수는 708척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음. (Clarksons)

Petronas launches hunt for two bespoke-size LNG carriers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 Petronas가 80,000CBM급 신조 LNG선 2척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선주들에게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확보할 LNG선 2척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싱가포르의 Pavilion Energy도 지난 3분기에 30,000~80,000CBM급 LNG선 확보에 나섰다고 알려짐. (TradeWinds)

LPG선 수급 전망 밝다

내년 LPG선 수요 증가율은 약 4%로 수급 전망이 밝다고 보도됨.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선대 증가율은 마이너스 기록도 가능하다고 알려짐. 2020년 해체 후보에 들어가는 선령 20년 초과 선박 수가 많은데 비해 내년 물동량 증가율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Hapag, 내년에 신조선 발주

Hapag-Lloyd CEO는 2020년, 신조선 발주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됨. 최근 신조선 발주가 잦아들고 해체량이 늘어남으로써 향후 2년 내에 컨테이너선 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보도됨. 그러나 신조선을 발주하더라도 인도는 23년 이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Vietnam seeks pioneering LNG vessel to serve power needs

South east Asian utility Vietnam Electricity가 LNG를 공급받는 FSRP(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and Power)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보도됨. 베트남은 현재 에너지 저장 문제를 고민 중이며, 국영 기업은 2025년까지 6개의 LNG 수입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 중으로 알려짐. (TradeWinds)

두산밥캣, 미국에 글로벌협업센터... "개발·구매 콘트롤타워 역할"

두산밥캣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글로벌 협업센터(GCC)를 설립했다고 17일 밝힘. GCC는 북미와 유럽,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며, 회사의 전략을 공유하고 신제품 개발, 물류, 구매, IT 시스템을 통합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